

네타냐후와 살리트

이번 주 약 만 명의 시위자들이 납치된 병사 길라드 살리트¹의 투옥 4 주년을 맞아 이스라엘 전국을 걸어서 행진했습니다. 살리트 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습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종교인이든 세속인이든 간에 상관 없이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시위자들과 신문 기자들은 네타냐후가 길라드의 석방을 위해 더 많이 양보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네타냐후는 길라드와 교환을 위해서라면 현재 테러 관련 혐의로 투옥 중인 1,000 명의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많이 양보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로 인해 하마스는 합의를 하기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요구를 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싸브 소식

감사하게도 무싸브 하싼 유세프가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자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스라엘 보안 담당관인 고넨 벤 이쯔학²은 자신의 목숨과 경력을 걸고서 그를 위해 증언했습니다.

무싸브의 책³ 히브리어 판이 금주 이스라엘 서점가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책이 엄청난 베스트 셀러가 되도록, 그리고 역사적 정보, 이슬람 테러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의 개인적 신앙 간증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후디트⁴의 바트 미쯔바

아하발 예슈아 공동체는 처음으로 예후디트 J의 바트 미쯔바⁵를 치렀습니다. 예배 후 히브리어로 토라를 낭독했습니다. 예후디트가 받은 할당을 완벽하게 읊었고, 간단한 강해와 간증을 했습니다. 예후디트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기도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애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2명의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엘라브⁶ 집회

이번 주말에 텔아비브에서 열린, (릭 라이딩스⁷와 수칼 할렐⁸이 후원) 엘라브 청소년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은 일요일 저녁에 섬길 것입니다 (아세르 설교).

봉투와 퍼즐 조각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각자를 위해 개인적으로 만드신, 구체적이고 놀라운 구상입니다 (롬 8:29, 엡 1:11, 벧전 1:4).

גלעד שליט (2006년 6월 25일 팔레스타인에 납치된 이스라엘 군인)¹

Gonen Ben Yitzhak²

<Son of Hamas>³

Yehudit⁴

12세된 유대인 소녀의 성인식⁵

יולא('그 분께로'라는 뜻. 5년째 매년 개최되는 이스라엘 청소년 집회)⁶

수칼 할렐을 인도하는 중보 사역자, 국제적 강사⁷

히브리어로 '찬양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24시간 기도의 집, 예루살렘 위치⁸

그 계획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릴 향한 계획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무리와 더불어 역사합니다. 그 공동의 운명을 ‘성도 안에 있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행 20:32 –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엡 1:18 –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골 1:12 – 성도의 기업의 부분

최근 저희 팀원들과 가진 기도 모임에서, 저는 방 안에 있는 이들에게 천사와 같은 이가 흰 봉투를 하나씩 주는 영적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의 운명.’ 각자는 봉투를 열어 봤고, 그 안에는 컬러로 된, 자그마한 골판지의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좀 혼돈스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조각을 들고 있는 중에, 저희는 각자의 운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들과 조각을 맞춰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각들이 합쳐질 때 우리의 운명을 뚜렷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